

# 벼랑끝에 몰린 인문학, 그러나 희망은 있다

삶에 대한 총체적 성찰 결여가 위기 불러...제도권 교육 환골탈태해야

최재목 | 영남대 철학과 교수

전통적 의미의 인문학은 당장에 돈과 밥으로 환산될 수 없다는

취약성 때문에 실용학문에 밀려났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일었던 인문학 논의는 철학적 기초를 다진 총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였다기보다는 산발적이고 일과성적인 '행사'에 머물렀다.

인문학이 살고 지식인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제도권 교육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세기말이라는 흐리고 복잡한 시간의 강물을 건너 2000년도에 진입하기까지 우리사회에서 요란스럽게 논의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인문학의 위기'였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 소리...제발 좀!"하고 귀를 틀어막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싫증나도록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어뒀던 탓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사회에선 이처럼 무엇이나 너무 쉽게 끊어올랐다 식어버린다는 점이다.

아직도 우리는 인문학 논의를 끝내선 안된다. 지난 세기에 인류가 오만과 독선, 광기로 문명의 등잔 밑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며 초고속 엔진을 달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사회도 그랬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 즉 인문학이 설 자리마련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 시장원리의 도입과 인문학의 위기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일었던 인문학 논의는 철학적 기초를 다진 총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였다기보다는 산발적이고 일과성적인 '행사'에 머물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논의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부다. 이른바 '대학개혁' '구조조정' 'BK21'이라는, 인문학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포탄처럼 쏟아지자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종자를 보존하지는 의식이 높아졌다. 대학 내부에 시장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학자만 살아남는다는 생존경쟁의 신호탄인 셈이었다.

더욱 IMF는 돈과 밥의 논리를 편들면서 대학사회가 시장바닥으로 바뀌는 데 힘을 실었다. 물론 지금까지 인문교육이 교육정책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교육부가 인문학자들의 의견을 진지하고도 폭넓게 청취·고려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이 인문학의 수원을 고갈시킨 구조적인 병인으로 꼽힌다.

어쨌든 문사철(文史哲) 분야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인문학은 당장에 돈과 밥으로 환산될 수 없다는 취약성 때문에 실용학문에 밀려나기 십상이다. 실제로 많은 언론에 보도됐듯이 인문학 강좌들의 폐강·폐업을 바라보는 인문학자들의 심정은 암담했다. 학계의 여론 수렴도 없이 추진된 교육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두고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을 다 죽인다'는 비명을 지르며 고유영토를 지키기 위해 학술대회 정도로나마 가시적 시위를 벌였다. 한편에선 자성의 소리도 있었고 또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인문학 위기에 대한 반응의 움직임 속에도 기득권 보수주의자들의 엄살이 섞여 있었다. 인문학자들과 동반해오면서 잇속을 챙겨온 주변 업체들도 한몫 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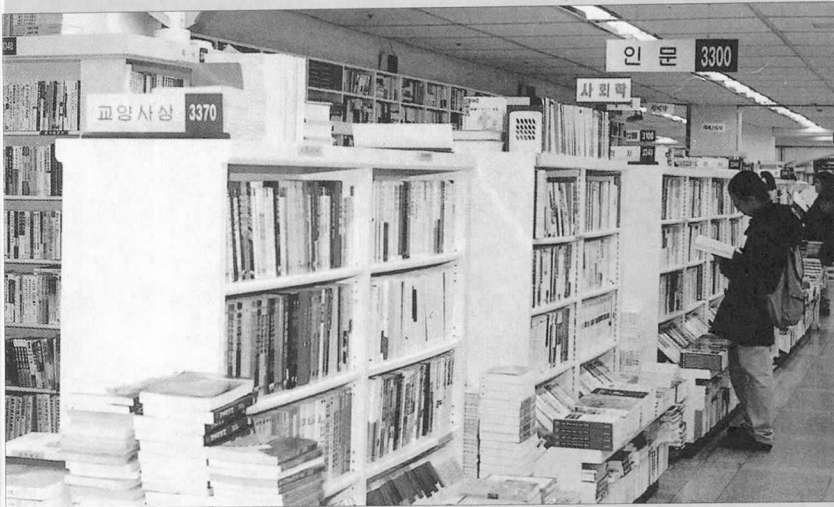
거품을 빼고서라도 '인문학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단순한 진리 확인은 큰 성과였다.

## 전공·학과의 틀 속에 갇힌 인문학

다만 분명히 지적해야 할 점은 냄비처럼 끓어올랐다 식어버린 인문학 위기론이 인문학자들 내부에서 제기되고 나서 다른 인접학문, 나아가서는 일반대중들 깊숙이 파고 들어가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현 가능한 대안, 호소력 있는 청사진 제시가 아닌 고상하고도 지적인 '논의'에 머무른 감이 있다. 그것은 인문학자들이 전공 학과라는 틀 속에 갇혀 주변과 대화하지 않고 변화하는 문화, 정보와도 담을 쌓아왔던 이력과 통한다.

대중문화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짜잡아 싸구려로 외면한 고상한 강단은 그들 집안과는 혼인할 생각을 안했다. 그 동안 기복적인 싸구려 인문학은 대중들 품에 안겨 사랑을 받으며 돈도 벌고 고상한 수준까지 올라섰고 강단을 내려다 보며 비웃기도 했다.

인문학의 강단은 무엇이 그토록 고상했다. 전통사회와 다르고 바뀐 현대의 발견·발명품과 호홉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고뇌하고 공부했어야 했다는 인문학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강단과 대중 사이는 이제 사랑과 우정 사이여야 하고, 삶과 삶 사이는 소통로



인문학의 위기는 사회지성의 몰락으로 귀결된다. 사진은 한 서점의 인문학 코너.

가 마비돼서는 안된다. 더욱이 인문학 내부에 온존하는 학벌과 파벌, 심지어는 관련 학회나 출판사 등에도 무슨 파, 군단이니 하는 계파의 제국(아성)들은 인문학의 창의성을 질식·퇴영시키는 소굴이라는 점도 자성해야 한다.

약간 눈을 돌려보면 인문학의 위기 문제는 동과 서, 어제와 오늘 어느 한쪽만의 일은 아니다. 먹고사는 현실의 뒤편에서 인문학은 거의 항상 배부른 적 없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왔다. 선비들이 걸었던 안빈낙도의 길 그것이었다. 인정·사정·물정을 직시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해 냉철히 묻던 지성들이 우리의 전통사회엔 많이 있었다.

### 서양 따라잡기에만 급급해

하지만 사실상 전통적 의미의 인문학 도통과 학통은 끊어졌다. 제사 때 한문으로 된 축문읽기 식의, 대중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 인문학 고수는 통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자생적 인문학 형성도 쉽지 않다. 우리사회는 전통의 산맥에 서양의 근현대 문명이 접합해 또 다른 새로운 인문학의 발흥을 요구하고 있다. 거품이나 사이버 인문학은 화장을 치러 진신사리만 추려내 참된 인문학을 고뇌하는 신심 있는 자들에게 나눠줘 같고 담겨 해야 한다.

근대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인문학, 인문학적 지성이 있었는가? 근대화니 세계화니 하면서 서양 따라잡기에만 급급해왔다. 지성의 산실인 대학엔 자생적 학술·생태공간의 구축이라는 장기적 계획 없이 속 편히 외제 박사로 온통 진열대를 채워왔다. 물론 서구와의 지적인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을 배우자는 논리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대책 없는 외제 지식 수입상의 행렬에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서구의 과학기술과 지식체계를 이해·해독하는 데 급급해 하면서도, 다시 서구를 넘어서서 인문학의 새 틀을 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인문학도 식후경'은 아니다. 인문학의 위기는 자연과학의 위기, 나아가서는 그 사회 지성의 몰락과 직결된다.

인문학자들이 자연과학과 만나는 것 못지 않게 자연과학 쪽에서도 인문학과 동거나 혼인이 필요하다. 그럴 때 과학·공업입국이란 식의 자연과학 육성만으로 '잘 살아보세'를 꿈꾸는 사회발전 환상도 줄어든다. 흔히 내뱉는 '다 먹고 살고 하는 짓인데'라는 말속엔 삶의 진리가 들어 있기에 '밥'과 '돈'을 위해 몸부림칠 때는 사람답게 산다는 생각이 어찌면 사치스럽기도 했다. 이것이 20세기 우리들의 벽에 걸린 서글픈 자화상이다.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용인된 사회의 이면에서 돈이 '지성'을 말해줬다. 돈 많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였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국 인문학이 움터 뿌리내릴 가망도 없었다. 돈과 밥을 위해 인기와 알파한 상술과 결합한 사이비 인문학 아니면 현실 안주형의 월급쟁이 인문학자가 대량 급조됐다. 삶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을 결여한 채 '더 빨리, 많이'를 외쳐온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지금 신평등도 비상등도 없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제도권 교육의 환골탈태 필요

우리의 교육은 이런 창의적 지성의 위기와 도태를 돕는 방조자로서 그 현장에 서 있었다. 인문학이 살고 지식인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제도권 교육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우리 학계나 예술계의 스타는 대체로 서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도 대부분 뛰어난 작곡가라기보다는 충실한 연주자에 비유할 만하다.

옛말대로 학자 하나를 배출하는 데 적어도 삼대(三代)에 걸쳐 공을 들여야 한다. 100년의 안목 없이는 탁월한 지식인을 기를 수 없다. 창의적인 우수한 인재들이 일류 유명상표의 대학에 가서 결국 국내 체제에 순응하는 판검사나 안정된 생계를 확보하는 의사의 길을 택하는 식으로는 우리 인문학은 경쟁력도 가능성도 없다. 세계적인 인문학의 스타는 대개 개성이 뚜렷한 천재들이다. 무너진 교실에서 묵은 이념으로 획일적 인간을 주조해내는 이른바 우리의 신민(臣民)형, 19세기형 공장에서는 빼딱하거나 튀는 사과의 천재가 두루뭉실한 한국 표준형 인간이 돼 나오고 있다.

미래는 투자 없이 그저 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위기도 결국 '돈'과 '분위기'와 '머리'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 극복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인문학의 씨앗이 희망의 나무로 자라나 그 밑에서 우리사회가 쉴 수 있는, 사람의 무늬가 있는 풍요로운 지성의 그늘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을 지닐 때 우리는 이미 한 단계 높은 삶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는 셈이다.●